

옛 파출소 건물, 청년자활사업장으로 재탄생

전주시, 유휴 국유건물 리모델링 통해 활용 가치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자립 지원 기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옛 파출소 건물이 전주시의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장으로 재탄생했다. 전주시는 1일 유휴 국유건물인 옛 금암동 문화파출소(덕진구 기린대로 379)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자활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청년자활사업장인 'Root 379'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보고와 개소 기념 커팅식에 이어 'Root 379' 자활사업장을 둘러본 뒤 청년들의 도전에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Root 379'는 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지원협회 전북지부가 힘을 모아 마련한 공간으로,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유휴 국유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폐 파출소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전주시는 1일 유휴 국유건물인 옛 금암동 문화파출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자활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청년자활사업장인 'Root 379'의 개소식을 가졌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Root 379'의 건물 1층에는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자활생산물 판매장이 갖춰졌으며, 2층은 청년들이 디저트를 개발·생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1층 카페에서는 개소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열기를 높이기 위한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간 운영은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운영되는 전주지역자활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맡는다. 시는 향후 이곳이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Root 379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자립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유휴 국유건물을 발굴해 새로운 자활 일자리 창출의 희망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원순환 솔선수범

직원 대상 '자원순환 주간' 운영

전주시 직원들이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자원순환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시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해 지난날 27일부터 오는 5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 중심의 기존



캠페인과 달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시 청소직원과 직원들은 자원순환 주간 동안 시청 로비와 대우빌딩, 현대해상,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 주요 청사에서 점심시간인 낮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한다. 또한 사무실과 가정에서 잡자고 있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 물품 교환사업'도 진행한다.

재활용품 물품 교환 사업은 일상에서 버려진 쓰레기지만, 분리 배출하면 고품질 자원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앞서 시는 자원순환 주간 첫날인 지난날 27일과 28일에는 각각 시청 로비와 대우빌딩 로비에서 1회용컵을 들고 오는 직원과 시민들에게 1회용 사용 자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물품 교환사업에는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약 350매의 종이팩과 건전지 약 1000개를 수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자원순환의 날' 기념 행사 6일 개최

전주시는 오는 6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에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는 '제로에서 다시, 인생 2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업사이클링)을 체험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용유가 있는 연고(자운고 연고를 만들어 다 쓴 화장품 용기에 담아 가기) △제로웨이스트 교체치약 만들기 △임주기업 오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만든 수선 작품 전시와 더불어 '수선 뽐내기 콘테스트'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 및 시상식도 진행된다. 특히 임주기업 오픈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센터에 입주한 6개 재활용 기업이 각자의 재활용 창작활동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새활용 키링 만들기 △자투리 천 바늘쌈지 만들기 △플라스틱 배너 안정집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독서의 달 맞아 특별한 인형극 공연 선보인다

전주시는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삼천도서관과 완산도서관 등 2개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인형극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주민 10인으로 구성된 '드림극단'에서 기획과 공연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드림극단은 오는 13일 삼천도서관에 '지구를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공연을 펼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완산도서관에서



'흑부리 영감' 동극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설화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극단 단원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마지막 공연 이후에도 지역 내 여러 도서관을 순회하며 인형극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덕진권역·가상경제 활성화 나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가상융합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2025 덕진권역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덕진권역 활성화와 지역 가상경제 촉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진행되며, 진흥원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인프라와 멘토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덕진권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가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다. 참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졸업생, 예비창업자, 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확인 후 오는 8일까지 전자우편(csrth@jc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최우수상(상금 300만



원)을 포함해 총 17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으로,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진행된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작 발표와 함께 향후 사업화 계획도 공유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전북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 및 법률지원단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주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지역 대학들과 유학생 권익 보호 협약

전주시가 지역 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 및 법률지원단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주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조덕현 전주시전대학 부총장, 강신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체류·비자·주거 등 제도적 정보제공 및 연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 △문화·체육 등 지역사회 통합 행사 개최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 △법률지원 △문화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